

서울 주보

제2508호
2024년 6월 23일(나해)

연중 제12주일

갈릴래아 호수의 폭풍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1606-1669), 1633, 캔버스에 유채, 160x128cm
이저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
소장 중 도난



입당송 | 시편 28(27), 8-9 참조

주님은 당신 백성의 힘이시며, 당신 메시아에게는 구원의 요새이시다. 주님,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 재산에 강복하시며, 그들을 영원히 이끌어 주소서.

제1독서 | 욕기 38,1,8-11

화답송 | 시편 107(106), 23-24, 25-26, 28-29, 30-31(◎ 1 참조)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배를 타고 항해하던 이들, 큰 물에서 장사하던 이들. 그들은 주님의 업적을 보았네. 깊은 바다에서 그분의 기적을 보았네. ◎

○ 그분 말씀에 사나운 바람 일자, 커다란 파도가 높이 솟았네. 그들이 하늘로 솟았다가 바다 깊이 떨어지니, 그들 마음이 괴로움에 녹아내렸네. ◎

○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빼내 주셨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

○ 바다가 잠잠해져 기뻐하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그분은 이끄셨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

제2독서 | 2코린 5,14-17

복음환호송 | 루카 7,16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음 | 마르 4,35-41

영성체송 | 시편 145(144), 15 참조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믿음, 풍랑 속 일상



이근상 시몬 신부 | 예수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마르 4,40)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사실 좀 섬섬한 꾸짖음입니다. 풍랑에 처한 우리가 당신을 믿고 깨우는 것 말고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뒤집힐 듯 출렁이는 배 위에서 살려달라 아우성치는 것 말고, 인간이 달리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러나 복음은 풍랑 속 우리에게 여전히 낯설 수밖에 없는 주님의 초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은 침묵, 마음의 소리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우린 곤장 이렇게 외치지요. ‘예, 주님! 그럼, 풍랑을 당장 멈추어 주십시오. 저희를 곧바로 살려주십시오.’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조바심. 어쩌면 우리로서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낯선, 예수님의 굵뚱이 이어집니다. 당장 풍랑이 일어 다 죽게 생겼는데, 삶의 위험이 가득한 이 위태한 순간, 예수님은 일상을 사시는 것으로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십니다. 파도가 삶을 집어삼키는 순간에도 자던 잠을 계속해서 주무시다니. 세상이 혀를 차며 예수가 망해버렸노라 우리의 위태함을 감지하며 놀리는데, 하던 식사를 계속하시고, 어둠 속 잠자리에 드시며, 어제처럼 다시 일어나시는 주님. 예수님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특별한 날에도 늘 ‘오늘’을 살아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믿음이란 풍랑을 멈추는 기적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삶을 계속해 살아

내는 담담함, 무엇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평화라는 듯.

인간의 살갗은 증폭기입니다. 바깥바람을 백배, 만배로 크게 감지하여 마음에 전하는 증폭기. 삶의 작은 바람이 우리 마음에 아리고 깊은 상처를 내는 이유입니다. 그간 우리가 해왔던 삶의 경험은 육신의 철석같은 믿음(?)이 되어 모든 것을 증폭시킵니다. 살아보니 삶은 실로 위험한 항해. 매사 조심하며 두리번거리라고 자식을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나 참믿음은 증폭기를 부숴버리는 선택. 주님을 닮은 참믿음은 사나운 바람조차 십분의 일, 백분의 일로 누그러뜨립니다. 믿는 자는 작은 위험을 과장하지도, 큰 시련에 짓눌리지도 않습니다. 참믿음은 폭풍우에 소스라치거나 기적 같은 미풍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때론 거세고, 때론 잔잔한 삶의 술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 언제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믿음은 땅의 바람이 아니라 하늘의 한결같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오늘은 풍랑을 멈추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우리를 삼키는 날도 옵니다. 죽음도 결국 오고야 말지요. 그러나 우리 구원은 여기 오늘의 풍랑을 벗어나는 안도 따위가 아닙니다. 크고 깊은 평화, 오직 주님 안에서 영원한 복을 간직하리라는 희망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출렁이는 뱃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마르 4,38 참조) 믿음은 마지막 그날까지 언제든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내는 마음입니다.



갈릴래아 호수의 폭풍

렘브란트는 배의 돛대를 기준 삼아 성화를 대각선으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폭풍을 맞이합니다. ‘배’로 상징되는 우리 인생에 들이닥친 폭풍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리고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인지 이 성화를 바라보면서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화
해설

기도의 선물



이경애 안젤라 | 상담심리사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신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도 지키며 살아온 때보다 냉담했던 기간이 더 깁니다. 제 나뭇가지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하느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기도해 봤자 소용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마음이 얼어붙어 갔습니다. 미사도 한 번 두 번 핑계 대며 빠지기 시작하다 주일미사조차 지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도 힘든 일이 생기면 다시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내가 믿음에서 멀어져서 벌을 주시는 걸까, 과연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할까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하고 싶지 않다...’를 오가며 강박과 죄의식, 두려움 사이에서 제 마음은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기도는 점점 무거운 숙제, 불편한 의무가 되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던 중 마샤 리네한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을 읽었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심리학자가 된 리네한은 수녀님을 꿈꿀 정도로 신앙이 깊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괴로운 마음으로 방황하던 시기에 신부님께 조언을 들었습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고 침묵으로만 기도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따라 기도하며 경험한 것을 리네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 경험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면 그것은 당신에게서 떨어져 있는 누군가와 대화가 된다. 하지만 침묵하면 당신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신과 하나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나 자신이 신의 한가운데 존재하는 경험이라고.”

책을 읽으며 기도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 기도는 침묵도 대화도 아닌, 오직 요구 사항

으로만 꼭 찬 독백이었구나. 철없는 아이처럼 조르고 투덜대는 일방적인 소리뿐이었구나.’ 속사포처럼 떠드는 내 음성만 메아리칠 뿐 하느님 말씀이 들려올 틈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걱정스러운 일을 하느님께 털어놓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의심과 불만만 가득한 투정은 아닙니다. 가끔 징징대고, 빠지고, 원망할 때가 있더라도 예전처럼 숨어버리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 수다가 좀 심해도 하느님, 이해해 주세요! 이제 좀 성장했으니 당신 말씀 들을 틈도 내어 보겠습니다. 여전히 드릴 말씀이 참 많긴 하지만요.’ 참 길었던 제 믿음의 사춘기가 이제야 슬슬 끝나가나 봅니다.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 조용한 아침, 초를 켜고 십자가 앞에 머뭙니다. 잠시 가만히 떠오르는 말을 기다립니다. 실 새 없이 떠돌고 조금하게 보채지 않으려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편안합니다. 머릿속을 분주하게 오가는 생각, 걱정거리들이 등장하면 주님께 말씀드리고 맡깁니다.

이제 기도는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닙니다. 평화를 누릴 기회인 걸, 그 자체로 기쁨인 걸 예전에는 왜 몰랐을까요.

예수 성심을 닮는 길

거룩한 제사(미사)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심을 닮고, 이 세상의 순례 길에서
늘 힘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이미 천상 교회와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모든 성인과 결합된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419항)



마르코와 함께 떠나는 복음 여행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

(마르 7:1-23)



이영제 요셉 신부 |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교수

신학생 시절, 친구들과 외출을 마치고 신학교로 돌아오던 때의 일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수레를 끌고서 혜화동 언덕길을 힘겹게 오르고 계셨습니다. 당시 학교 근처에 큰 고물상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 종일 주워 모은 폐품을 팔러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할머니 도와드리자.” 한 친구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가면, 우리 귀원 시간을 못 지킬 것 같은데...” 다른 친구의 현실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릴 것인가, 신학원의 규정을 충실히 지킬 것인가. 그렇게 잠시 서로의 눈을 바라보던 친구들은 모두 “일단 도와드리자!”라고 말하며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수레를 끌고 밀고, 그렇게 고물상으로 달려가 짐을 다 내려드린 후, 학교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외출 마감 시간은 이미 지났고, 결국 기도에도 늦게 되었습니다. 신학원 규정을 어긴 저희는 저녁 식사 후 원감 신부님을 찾아가 외출에 늦은 사실과 그 이유를 이실직고했습니다. 늦었다는 사실에 혼이 날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행복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 꼭 그렇게 해라.”

어느 날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7:5)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에 담긴 하느님의 마음을 잊고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얽

매여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리하게 지적하시면서 이사야 예언자가 위선자들을 두고 했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7:6-7)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악용되고 있던 종교적 실천 중 하나인 ‘코르반’을 언급하십니다. ‘코르반’은 하느님께 예물을 드리기로 한 서약을 뜻하는데, 이 서약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공양할 물건을 성전에 바친다고 맹세하면 공양의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모 공양을 피하려고 코르반 서약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율법 학자들은 하느님께 대한 흠숭이 부모 공정보다 앞선다는 논리를 들며 악용된 코르반 서약도 유효하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왜곡된 종교적 실천을 고발하십니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7:8) 그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하느님의 계명보다 사람들이 만든 전통에 집착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한 규정들이 오히려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신학원 규정을 어겼지만, 그보다 사랑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신부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그분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 꼭 그렇게 해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유



방종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는 “하느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청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바로바로 들어주셨습니다. 이토록 신속하고 빨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니! 너무나도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느님이 항상 즉각적으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들어주시기도 하였고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는 아픈 경험을 겪으며 하느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애정을 담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느님을 믿습니까? 왜 성당에 나오십니까?” 여러 답을 해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당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서요, 하느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져서요, 하늘 나라에 가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모두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본질적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하느님은 오직 ‘나의 편의를 위한’ 하느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나의 문제가 기도로 해결되지 않으면 금방 하느님께 등을 돌리거나 원망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은 《신애론》에서 사랑의 등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낮은 첫 번째 등급은,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연스럽게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요. 두 번째 등급은 “자신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을 믿는다면 이는 그리 높지 않은 등급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등급은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는 것을 알기에 자연스럽게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는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잘 실천하면 네 번째 등급에 이르게 되는데, “하느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 이후 하느님을 마주하며 느끼게 되는 가장 높은 등급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의 등급은 어디쯤인지요. 우리는 나의 편의나 즐거움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인 지극히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고 삶은 더욱 투명해지며 활력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의 뜻과 움직임을 살펴보고 확인하게 되며 구원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보다 더욱 좋은 방식으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하느님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분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희망, 사랑을 갖는 것. 이것을 교회는 향주덕, 주님을 향한 덕이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진짜 내 모습



임여주 아네스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언제부터인가 자기소개를 할 때 자신의 MBTI(엠비티아이) 유형을 말하고 상대의 MBTI 유형을 묻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든 MBTI 테스트는 피해 갈 수 없는 대화 소재가 되었지요. 그러나, 때로는 이런 테스트보다 상대방의 눈에 비친 내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또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니까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유형 하나로 정의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희영의 청소년 소설 《여름의 굴을 좋아하세요》의 주인공 선우혁에게는 십이 년 전 세상을 떠난 형이 있습니다. 서로 너무 닮아 십삼 년 차이 나는 쌍둥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던 형, 선우진. 형이 다니던 학교에 입학하고, 형이 입었던 것과 같은 교복을 입고, 자신을 보며 형을 떠올리는 부모님의 반응을 대하며 선우혁은 새삼 형이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알고 싶어집니다. 형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형이 고등학생이던 시절 유행했다는 메타버스 게임 ‘가우디’를 알게 된 선우혁은 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아내어 그곳에 입장합니다. 가우디에서 그 시절 형이 만든 집과 정원 그리고 그 공간을 함께 꾸민 형의 ‘공유 친구’ 곱술을 만나게 됩니다. 곱술은 누구인지, 형과 곱술은 어떤 관계인지, 곱술에게 형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하지만, 형과 가장 친한 친구는 형이

가우디를 했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형 친구에게 형은 그저 “무뎀한 성격”의 친구였고, 오래전 담임선생님에게는 “조용하고 책임감 강한 학생”이었으며, 엄마에게는 “애교 많은 수다쟁이 아들”이었습니다.^(203쪽)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경험한 상대만 알고 있다.”^(204쪽)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선우혁은 주변 사람이 기억하는 그 모두가 형의 진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청소년이 집에서 보이는 모습과 학교에서 보이는 모습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말수가 적은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누구보다 활발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집에서는 명랑한 아이가 학교에서는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하는 학생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느 일에도 시큰둥하던 아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일에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지요.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가진 내가 혹시 이상한 걸까’ 하며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의 일부니까요. 상황과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 어찌 생각하면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며 여러 모습의 나를 인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청소년이 다양한 진짜 자기 모습을 즐겁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욕구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학기가 시작하면 매주 토요일 오전에 신학교에 가서 대신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인성 양성 교육’을 합니다. 올해 1학년 신학원생은 서울과 의정부 두 교구를 합쳐 모두 11명입니다. 전과 비교하면 무척 줄어든 숫자이지만, 소수인 만큼 정예인 학생들의 눈망울은 뽕뽕뽕망하기만 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강의와 나눔을 섞어 진행하는데, 얼마 전 ‘욕구’라는 주제를 처음 다루던 시간이었습니다. 칠판에 ‘욕구’라고 크게 적고는 학생들에게 물었죠. “‘욕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내 안에 욕구가 많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물음을 던지면서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반갑지 않아요.”, “없으면 좋겠어요.”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욕구 자체는 사실 좋고 나쁨을 따질 대상이 아닙니다. 욕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좋다.’ 등등의 설명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1학년 친구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욕구가 적당히 있으면 좋겠어요!”

참 건강한 대답이다 싶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일종의 ‘금욕’을 강조하던 분위기에서 자란 저로서는, 욕구는 나쁜 것이고 그래서 없으면 좋은 것이며 없앨 수 없다면 최대한 억누르며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거룩한’ 삶의 방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성 신학과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욕구를 새롭게 이해하고 욕구가 전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좋지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 친구들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욕구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바람입니다.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인 존재인 이상, 욕구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정말 아무 욕구도 없다면 그는 먹지도 자지도 않을 테고 하고 싶은 것도 바라는 것도 없는 사람일 겁니다. 반면에 욕구가 적당히 있기를 바라는 것은, 욕구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인(動因)이고 에너지인 것을 이미 아는 모습입니다. 물론 때로는 욕구 때문에 미성숙하게 행동하고 그래서 후회도 자책도 한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욕구가 ‘적당히’ 있기를 바라는 것은 욕구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어느 곳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변화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 좋은 방향인지 알더라도 그곳을 향해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요. 어느 곳으로든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삶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 나쁜 쪽으로 가더라도 아주 큰 일은 아닙니다. 좋은 쪽으로 방향을 다시 돌리면 되니까요. 욕구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제,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찾아보실까요? 내 안의 나는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나요? “무엇을 찾느냐?”(요한 1,38)

상단 큐알(QR)코드를 통해 지난 연재글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6월 24일(월)은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이며, 6월 29일(토)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2024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행사

6월 25일은 민족의 화해의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한국 교회의 고유 전례력에 따라 각 본당에서는 6월 25일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그 전 주일인 오늘(6월 23일) 미사에서는 민족화해 사목 및 북한 형제를 위한 나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6월 24일 윤의병 바오로 신부(60세)
- 1950년 6월 25일 김경민 루도비코 신부(48세)
- 1984년 6월 25일 노기남 바오로 대주교(82세)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영명 축일

6월 29일은 교구장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모든 믿는 이들의 목자요 인도자이신 하느님,
하느님의 일꾼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를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그를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많은 양 떼를 보살피고
마침내 그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서울주보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교구청 알림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없음)
때, 곳: 7월4일(목) 14시~15시, 문화관 2층 소성당(교스트홀) / 집전: 김경진 신부(대만 선교)
문의: 02)727-2407, 2409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주제: '이주배경 아이들의 인권'
지향: '이주배경 아이들을 위하여'
때, 곳: 6월27일(목) 19시, 명동대성당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 문의: 02)924-9970
주관: 이주사목위원회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 교육생 모집

위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육,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향심기도 월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1만원

일반인	7월1일(월) 13시30분~16시30분
직장인	7월7일(일) 13시30분~16시30분

2024년 하반기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교회음악가자격증 과정 모집

원서접수: 7월8일(월)~26일(금)
접수방법: 아카데미 사무국 전화문의의 요망
대상: 음대 졸업자(2년제 포함) 및 본 아카데미 실기전문과정 중급 이상의 실기 능력을 가진 자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www.casm.co.kr) 성음악위원회

하반기	개강일정	8월31일 개강
	교육방법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슨, 토요 미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교육과정	교회음악가자격증과정: 3학기 과정 / 주말반 운영 서울대교구장 인준의 전문 중급 교회음악가자격증 수여 전례음악집중교육과정: 2학기 과정 / 주말반 운영 아카데미 원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입시일정	원서접수 → 면접전형(실기) → 합격자발표 → 등록

2025년 명동대성당 상반기 혼인 예약 안내

1월~6월: 7월19일(금) 14시, 대성당 / 문의: 02)774-1784
낮 12시 성당마당 부스에서 추첨 순서번호표를 나눠드립니다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중추첨,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혼인예약이 불가합니다

7월~12월: 2025년 1월~2월 중 추첨 예정(추첨 일정 별도 공지)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요일	17시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 · 14시 · 16시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적서본 1부(신랑 ·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 불가)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안내'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추첨 일정은 교구 및 본당행사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임향숙(수잔아트 갤러리) · 김지영(시유네) 2인전: 1전시실
류재영 개인전: 2전시실
안소현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6월19일(수)~27일(목)

민족화해위원회

1) 2024 DMZ청년평화순례 참가자 모집

대상: 만 20세~39세 청년 40명
때, 곳: 8월29일(목)~9월1일(일), 연천 · 철원 접경지역
접수마감: 7월10일 / 회비: 10만원
문의: 02)753-0815(문자로 신청: 010-4682-2412)

2) 1424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6월25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본당': 평양교구 대신리 본당
3) 후원회 미사

대상: 후원회원 및 누구나 / 문의: 02)727-2415
때, 곳: 6월28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소성당)

7월 도보성지순례 및 성지안내 해설사 양성교육

1) 해설이 있는 천주교 서울순례길 도보순례

일시	코스
7월5일(금) 한국성직자들 의수호자 성 김대건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축일	<김대건 신부님 치명 순교길> 오전 9시 우포도청 터 출발 → 오후 1시30분 절두산 순교성지 도착
7월31일(수) 저녁애순례길	<7017코스> 오후 7시, 서소문역사공원 - 약현성당 - 7017 - 명동성당(오후 9시경 해산)

신청: 6월24일(월)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검색창: 순교자현양위원회) / 문의: 02)2269-0413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2) 2024년 성지안내해설사 양성교육

대상: 순교자현양회의의 성지안내 해설사(봉사자)로 활동을 원하는 62세(1962년) 이하의 신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문을 반드시 참조바랍니다(검색창: 순교자현양위원회) / 문의: 02)2269-0413
때: 7월~10월 매주(월, 수) 오후 7시 / 7월1일 개강
곳: 교구청 회의실(중구 명동) / 회비: 10만원

인준단체 알림

모임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7월1일~31일 / 문의: 010-8867-3217

금요철야기도회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강사: 윤창호 신부 / 문의: 010-3242-6868
때, 곳: 6월28일(금) 17시~22시(미사 21시),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500·504·651 환승 천주교성령
봉사회 하차 / 강의, 기도회, 율동, 찬양, 고해성사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분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우도해변 포함 7월20일~22일·7월25일~28
일·8월1일~4일·8월6일~8일·8월10일~13일·8
월24일~26일, 9월2일~4일·9월7일~9일·9월21
일~23일·9월26일~28일, 추자도 포함 9월11일
~14일·10월5일~8일·10월27일~30일 / 문의(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11지구 역삼동성당 기도회

때, 곳: 매주(금) 19시~21시45분(미사 19시), B1 경환당
(주차 가능) / 문의: 010-4667-3792 서 카타리나

6월28일	이상기 회장	7월5일	김성대 신부
7월12일	성모찬송 촛불기도회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형성) / 010-3340-0201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7월5일(금)~7일(일)
효소 단식	7월11일(목)~14일(일), 8월9일(금)~12일(월)
성경 완독	7월26일(금)~8월3일(토), 8월23일(금)~31일(토)

파티마 평화의 성당 피정

때: 10시~14시(미사) / 문의: 031)952-6324

매월 첫 토요일 성모신심 피정	7월6일(토)
매월 13일 파티마 성모님 발현 기념 피정	7월13일(토)
매주 목요일 피정	강사: 이한택 주교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생태 순례	7월19일~21일, 9월1일~3일, 9월20일~22일
여름 특별 피정 (우도 해변 포함)	7월25일~28일, 8월2일~5일, 8월8일 ~10일, 8월14일~17일, 8월21일~23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9월7일~10일, 11월3일~6일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7월5일 10시~15시30분
대침묵 피정	8월16일(금)~18일(일)
다네이영성수련 피정	8월22일(목)~25일(일), 10월25일(금)~27일(일)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경당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혼인성소 찾기 피정(고령)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매주(화) 6월25일 12시30분~16시
곳: 가톨릭회관 7층 / 강사: 이상기 회장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노들담 성소 침묵 피정(노들담수녀회)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선착순 9명
때: 7월19일(금) 20시~21일(일) 16시
곳: 노들담 수녀원(인천) / 문의: 010-3930-6730

예수회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이나시오 영성연구소)

때, 곳: 4박5일 8월6일(화)~10일(토) 18시·일상생
활 속의 영신수련 8월26일~12월16일 매주(월),
예수회센터 / 문의(접수): 02)3276-7794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

때: 7월18일(목) 18시~21일(일) 16시40분
곳: 제주 성이시돌 피정의 집 / 황정연 신부(예수회)
회비: 30만원 / 계좌: 농협 301-0197-3172-01
문의(접수): 064)739-0951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7월1일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퀴나소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 문의: 02)753-8765

말씀: 박민우 신부 / 찬양: 최준익, 이정수
때, 곳: 7월7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2024년 살레시오 여름 성소캠프(살레시오회)

곳: 대전 살레시오 교육사목센터
7월28일(일)까지 접수 / 문의: 010-6221-3520

중1~고2 남학생	8월10일(토)~11일(일)
고3~35세 이하 미혼 남성	8월17일(토)~18일(일)

제24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pbccamp.com)

미국	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영어캠프 (디즈니랜드, 실리콘밸리 탐방)	이진현 신부
영국	국내 유일 옥스퍼드 영어캠프 (손흥민 토트넘, 서유럽투어)	최지원 수녀
사이판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과 현지 투어	주원준 박사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

7월 개강 /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월)	문화유산으로 보는 교회사 (고대·중세) / 현장만 가능	이진현 신부
(화)	영성과 심리의 통합 첫번째 길 불완전한 영혼의 영적 여정	최지원 수녀
(화)	구약성경 아카데미-시편 해설	주원준 박사
(수)	로마를 읽자	김민 신부
(목)	서구의 그리스도교 미술	박혜원 강사

벨칸토 성악 교실

성가·가곡, 초보자 환영
때, 곳: (금) 10시, 전철 4호선 성
신여대입구역 1분 거리 / 문의:
010-2252-2974 강신옥(국악성악연구소)

미사반주자·예비반주자 오르간교육

곳: 9지구오르간교육연구소(주최) / 010-3203-8183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7월16일~30일 매주(화)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해외가톨릭사립학교 학생 모집

정규입학: 초5~고2, 미국·아일랜드(단기 가능)
문의(예약):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7월 수요일·미사(도미니코 수도회)

때: 7월 매주(수) 19시30분~21시 / 010-5075-3513
곳: 도미니코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
8(수유동) / 4.19민주묘지역에서 100미터)

'왜 다시 '문화의 복음화'인가?' 세미나

때: 6월27일(목) 14시~17시 / 누구나 참여 가능
곳: 가톨릭회관 2층 강당(203호) / 문의: 010-
8724-2012 이 에밀리아나(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제21회 가톨릭 대안 좋은학교 연수

대상: '좋은(Quality)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
때, 곳: 7월20일(토)~21일(일) 1박2일, 양업고등학교
접수: 7월9일(화)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회비: 8만원(식비 포함) / 문의: 043)260-507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024년 가톨릭 뮤직캠프(1박2일) 접수

때: 8월23일(금) 17시~24일(토) 1박2일
곳: 민족화해센터(파주) / 회비: 15만원
과목: 소프라노, 알토, 남성, 기초발성반
50명 선착순 접수 / 문의: 010-5245-2848 심준보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모니카교회음악원)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스페인어·이탈리아어 강좌

7월~8월 여름학기 수강생 모집
개강: 7월9일(화)~10일(수) 강좌별로 상이함
주2회(문법·회화) 총 30시간, 8주 / 회비: 32만원
왕초보~고급반 단계별 맞춤형 교육
문의: 02)705-8718(http://ssec.sogang.ac.kr)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이슬리스피 합창단원 모집

르네상스 무반주음악에 특별한 관심있으신
성악전공자 테너·베이스·알토 각 1명
연습: 매주(토) 10시~12시
10월31일 팔레스티나 미사곡 정기연주회 예정
문의: 010-9842-8818 시스파나 음악원(신촌)

마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6월26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오기선요셉장학회 월례미사

집전: 오태순 신부 외 사제단 / 문의: 010-8982-9819
 때, 곳: 6월27일(목) 오후 3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례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때, 곳: 6월28일(금) 11시30분, 전철 2·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6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6월26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월례미사 / 문의: 02)749-4596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때: 6월24일(월) 14시 / 집전: 송영호 신부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가톨릭목포성지 준대성전(Basilica Minor) 후원회 미사
 때, 곳: 매주(토) 11시, 산정동 준대성전(2층)
 후원 ARS 번호: 060-700-1925(천국이오-한통에 1만원)
 후원 계좌: 농협 301-1177-1178-11 (재)광주구천 주교회유지재단 / 문의: 061)279-1177, 061)276-8300 최중훈 신부(성지 담당)

웅기장학회 월례미사

때, 곳: 6월24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례: 강신구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송우석 신부 /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서울고속버스터미널(준)성당 미사 / 문의: 02)535-6604
 곳: 서울 고속터미널 경부선 10층(옥상공원 남산방향)
 (화~금) 12시 (일) 11시·17시·21시
 (토) 13시30분(토요 주일 미사)

안내

가톨릭여성연합회 6월 정기월례회

미사·특강: 박재찬 신부(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때, 곳: 6월25일(화) 10시30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문의: 02)778-7543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품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은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ac.or.kr)

나루 상담센터

곳: 논현동 / 대상: 심리적·정신적·영적인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심리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익산 성글라리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수도원을 철거하고 곧 공사가 시작됩니다
 도움을 겸손되어 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제24회 가톨릭포럼 '시시대-미디어 패러다임과 윤리'

때: 6월27일(목) 14시30분~16시30분
 곳: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19층
 문의: 010-2352-2007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뽐자비의수녀회)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천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곶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청소년 언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특화기관입니다 /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내용: 언어상담, 매체상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 문의: 02)2051-3743
 곳: 살레시오 수도회(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37)
 회비: 언어상담 회당 5천원, 매체상담 회당 3만원, 종합심리검사 15만원(상담은 20회기 선납, 정부지원 취약계층 및 시설 거주 청소년은 무료 지원)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전진상 영성센터

곳: 명동 / 문의: 02)726-0700(www.jjscen.or.kr)

중독과 영성 (7월 특강)	7월9일(화)·10일(수) 10시~13시(2일간) 강사: 홍성민 신부 / 회비: 6만원
전문 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모래놀이치료, 종합심리검사·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분양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대인관계, 부부, 사별, 우울,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 / 문의: 010-9146-7654

직원모집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모집분야: 편집, 판매, 영업, 물류, 경비·주차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l886@catholicbook.kr) 접수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조리사 모집

근무: (월~금) 7시15분~13시45분
 대상: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1명 / 문의: 02)2235-4000
 급여: 2024년 서울시 어르신 급식사업 조리사 인건비 기준(1,865,080원-급식비 포함, 세전 기준)

본도출판사 편집부 신입 및 경력자 모집

계약직(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단행본 편집자·신입 및 경력
 외국어 가능자 우대(영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문의(접수): 이메일(editor@bundobook.co.kr)

목동성당 방호원 모집 / 문의: 02)2643-2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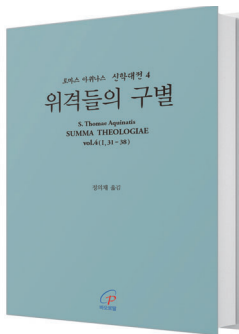
대상: 신자로 시설관리·방호·영선·미화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 채용시까지 방문·우편(우 08011, 양천구 목동서로 271, 목동성당 사무실) 및 이메일(subhee@seoul.catholic.kr) 접수

전동성당 관리인 모집 / 문의: 02)2241-7841

인원: 1명(계약직) / 업무: 시설관리·방호·미화 등 전반적인 업무(필수: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성실하고 건강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채용시까지 우편·방문(우 02548,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9길 25(전농동) 전동성당 사무실)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상의 후 결정	상의 후 결정	010-9304-0295 채 세실리아 수녀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286-7970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수녀원(전철 2호선 건대입구역)	010-7197-1390 효주 수녀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외방선교수녀회	6월29일(토) 14시 / 그 외 전화	수녀원(보문동)	010-9353-1773 (미리 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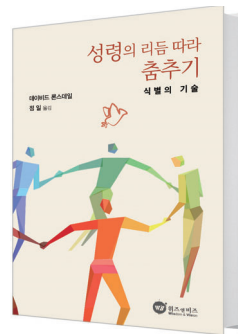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게재된
시간 검색

신간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4
위격들의 구별
(개정판)토마스 아퀴나스 지음
바오로딸 | 328쪽 | 2만6천원
문의: 02)944-0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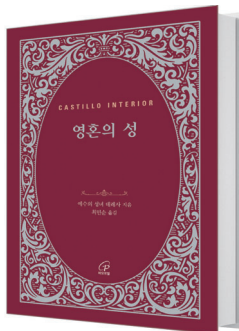
《신학대전》은 하느님과 세계와 인간에 대해 깊이 통찰하여 그 본질과 존재를 유감없이 탐구한 책이다. 제4권인 본서에서는 하느님의 존재와 본성, 속성 등 신론과 피조물인 천사, 물질계, 인간 그리고 하느님의 섭리에 대해 논한다. 한국가톨릭학술상(제5회)과 한국가톨릭매스컴상(제19회)을 받았다.



신간

성령의 리듬 따라
춤추기데이비드 론스데일 지음
위즈앤비즈 | 280쪽 | 1만4천원
문의: 031)986-7141

인간은 자유를 가진 존재요 초월적 존재다. '산다는 것'이란 되어 간다는 것이기에 인간은 자기 초월을 갈망할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내는 수많은 옵션 중에서 바르고 창의적인 선택을 잘해야 한다. 저자는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로서 성령과 더불어 살 수 있게, ‘성령의 리듬 따라 춤추기’ 할 수 있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신간

영혼의 성
(개정판)예수의 성녀 데레사 지음
바오로딸 | 384쪽 | 1만5천원
문의: 02)944-0944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손꼽히는 신비가인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주옥같은 작품들 중 하나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영혼의 깊은 곳을 성(城)으로 비유하고 일곱 개의 궁방으로 나누어, 자아 인식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느님과의 사랑의 합일 곧 영적 결혼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음악회

국립합창단
제198회 정기연주회

때, 곳: 6월 25일(화) 19시 30분,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1668-1352 예술의전당, 1544-1555 인터파크 티켓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참조시 주보 1부 2명 20% 할인

국립합창단 제198회 정기연주회 <합창음악, 그 위대한 역사적 시대를 돌아보다>가 오는 6월 25일(화) 19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린다. 민인기 단장 겸 예술감독의 지휘와 국립합창단의 연주로 르네상스 시대부터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아우르는 위대한 명작을 통해 합창 음악의 진수를 선사한다.



콘서트

JU콘서트
For you & For me

일시: 6월 29일(토) 17시 / 전석 무료
장소: 청년문화공간JU 지하 1층 다리소극장
(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문의: 02)338-7832

청년문화공간JU에서 주관하는 JU콘서트 'For you & For me'가 6월 29일(토) 17시, 청년문화공간JU 다리소극장에서 있다. 깊은울림합창단의 멋진 무대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For you & For me' 콘서트로 행복한 음악의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뮤지컬

코믹 뮤지컬
5! 해피맨

때: 7월 27일까지 (화~금) 19시 30분, (토) 15시·19시, (주일·공휴일) 14시·18시 / 문의: 02)742-7779
곳: 더굿씨어터 / 매주 (월) 공연 없음
입장료: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참조시 주보 1부 2명 50% 할인

베네딕토 신부님의 실수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문 닫을 위기에 놓인 오리 농장을 돕기 위해 자선 모금 콘서트를 개최한 다섯 명의 신부님들! 하지만 모금한 기금을 모두 날려버리게 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창작 뮤지컬인 이 공연은 7월 27일까지 더굿씨어터에서 공연될 예정이다.